

농촌과 모자보건

〈충남 감독보건장호원〉 박 노 예

우리나라처럼 한해(旱害)수해(水害)에 대해 은신경을 기울이는 나라도 아마 드물게 생각이 된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나라의 평안과 발전이 농촌의 농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조 오백년을 거쳐 오늘날까지 국정의 안정과 평안은 농촌의 양상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덴마크나 미국 또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오늘의 번영에 밑바침이 된 것은 바로 농촌의 근대화 그것이었고 단정지을 수 있겠으며 선진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건국 이상에서도 근대화된 농업을 주로 하고 공업을 부트리는 국가만이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행여 세계의 흐름이 이런 이치를 우리나라라고 뒤질 수가 있겠으며 이에 대한 것을 뒤로 할 수 있겠는가?

현저하게 발전하는 농촌의 발전상과 농업의 근대화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농촌의 근대화와 모자보건사업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무엇이 우선 순위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농촌의 근대화에 원동력이 되는 것은 농촌의 각 가정이 평안하여 맡은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건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런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의 주가 되는 주부와 가정에 기쁨과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우선 건강하여 논밭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에게 정신적인 전전과 끈임 없는 강한 내조자가 되어 주어야겠다.

여기서 농촌 모자보건의 중요성은 도시의 그것과 비교하지 못하게 대두되어 오는 것이다. 그럼 왜 하필이던 모자보건만을 이렇게 별개 분야로 중요히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

로는 왜 농촌의 근대화가 국가의 양상을 좌우하는가와 비슷한 이론이 된다.

첫째 이유로는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위치는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0~14세까지의 어린이의 수는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세까지의 부녀자의 수는 총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도자의 건강관리는 중요시 아니 할 수가 없겠으며 둘째 이유로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이 층은 다른 어느 층의 사람들보다 상처 받기 쉬운 층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나 합병증 그리고 위험 증상은 임신과 분만 중에 의하여 밀접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임신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 영양실조, 빈혈, 심장증상, 결핵, 성병감염, 유산, 임신중독, 산후출혈, 산후감염, 이상임신과 위치이상 등이며 영유아 또는 신생아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나 질병은 출생시 손상, 조산아, 신생아과상풍, 영양실조, 성장발육이상, 정신상태이상, 사고, 신진대사와 내분비 장애, 선천성 기형 및 아동들에게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전염병, 천연두, 홍역, 수두, 이하선염, 소아마비, 유행성뇌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연쇄상 구균의 감염 및 적타 등이다.



〈박 노 예〉

상기의 모든 요인들로 인한 보생 사망 및 영유아 사망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나 아래에 소개하고자 하는 농촌 모자보건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통계자료는 1964~1965년 사이에 충청남도 대덕군 보전소의 “크리닉”에 오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다.

유산~1,000명의 임부 중 40명이 유산을 했는데 이 40명 중 $\frac{1}{4}$ 은 인공유산이고 $\frac{3}{4}$ 은 자연유산이었다.

사산~1,000명의 출산아 중 11.5명이다.

신생아 사망~1,000명의 출산아 중 28.9명이다.

영아 사망~1,000명의 출산아 중 49.4명이었는데 이 중에 58.4%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죽었고 41.6%는 1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죽었다.

(그런데 1960년~1965년 경제기획원 통계부에서 조사한 한국의 영아 사망은 1,000명의 출산아 중 58.2명이라고 발표되었다.)

유아사망:~1,000명중 52.6명이다. 상기 사항을 대강 요약하면 1,000명의 출산아중 약 50명 가량은 생후 1년 이내에 그 생명을 잃고 또 다른 50명은 생후 1년 이후부터 학교에 갈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생애에 큰 손실이며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모성 사망:~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정확한 모성 사망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지 사업을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률은 확실히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아직도 90% 이상의 분만이 시골에서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모자보건 사업은 아직도 시골까지 침투되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모자보건 사업은 아직도 시골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확장하고 국민 보건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시 농촌의 모자보건은 침체된 채 일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우선 그 첫째로는 보건분야에서 종사하는 간호원의 수 부족 및 사업에 대한 의욕이 최저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모순된 간호행정기구가 그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겠다.

그러면 왜 보건분야에서 종사할

간호원이 부족되고 사업에 대한 의욕이 최저로 저하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전국 각 보건소 및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원 및 과거의 보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원들 자신이 정확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가지 실지 예를 들어 이 의문을 푸는 것을 대신하고자 한다.

K 군 속에 있는 J 지소에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4년 동안이나 모자보건 사업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 오던 간호원이 갑자기 양호교사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난 급히 그 지소를 방문하여 이유를 물어본 즉 제일 첫째 대답은 “난 가정방문이 내 생리에 맞지 않아요”였으며 두 번째 대답은 4년 동안 힘껏 했어도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물어 들것을 권고하는 나의 말에 그는 다시 “이상은 더 고생할 수 없어요. 겨우 6,000원의 봉급을 받고……간호 보조원보다 못하니 같이 일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창피해서 이 이상 못있겠어요”라고 흐린 얼굴로 세 번째의 대답에 증지부를 찍었다.

이 간호원의 세 가지 대답이 바로 왜?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원이 자구 병원이거나 기타 양호교사로 옮

겨가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즉 첫번째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방문이 생리에 안맞는다는 말은 농촌의 구석 구석을 방문하는 일이 너무도 견디기에 어려운 고생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두번째의 대답은…… 희망과 이념을 뚜렷이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며 세번째의 대답은 너무도 빈약한 대우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촌보전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서독이나 캐나다로 간호원이 다 가서 농촌에 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고달픈 일이고 보수는 적고 그렇다고 5년 10년을 근무 해도 직위가 올라간다는지 하는 희망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미련은 있으나 우선 보수가 많고 편한 양호교사나 병원 또는 의무실을 찾아서 농촌 보전에 그 특한 문제점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보전 사업이 침체되는 두째 이유인 모순된 간호행정 기구를 들기로 하겠다. 첫째 농촌 보건소의 기구를 보면 똑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3~4명이 되어도 하나의 계가 되어 계장(4甲)이 있는데 간호원은 6~8명이 있어도 계가 없고 계장이 없다. 또 한가지 실례를 들면 K 도립병원에 간호학교를 나온 간호원이 처음 근무를 할때 C라는 청년이 사환으로서 일하였다. 세월이

흘러 9년이 되었으나 그 간호원은 여전히 보건소에 간호원(5甲)이고 그 C라는 청년은 어엿한 계장이 되어 간호원들에게 계장 대우를 안한다고 불평을 늘어 놓는다. 이때도 참고 농촌의 근대화에 투신하는 간호원이 몇명이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어야 할 현실에 직면한 농촌보전 간호사업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한 농촌의 근대화 및 농촌의 모자보건 사업을 위하여서는 우선 어느 위치에 있는 간호원이든 간호원 각자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노력하여 행정부에 있는 간호원은 산하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와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려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실지 일선 보건소나 산간벽지 지소에 있는 요원들은 전등과 수도, 우물조차 없는 악 조건이라도 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조금만 더 참고 힘을 합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뜨거운 햇볕아래 乾瘠 直播 小株密植 등의 농촌계몽 운동까지 결하여 시달리고 있는 보건분야 요원을 의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밝은 눈으로 바라보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

×